

“도민 불편사항 개선하고 공무원 비위·부조리 뿌리 뽑는다”

전남도, 도민감사관 148명 위촉 역량강화워크숍...우수활동사례 공유

전남도가 21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도민생활의 불편 사항과 공무원 비위 등을 감시할 제10기 도민감사관 148명을 위촉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도민감사관 등 1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과 청렴을 주제로 한 샌드아트 공연, 도민감사관 제도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활동일정 안내와 함께 우수활동 사례도 공유했다. 이번에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2024년 10월까지 도민의 생활 불편사항과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지역 현안사업 등 추진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제시, 도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 활동을 펼친다.
이번 제10기 도민감사관은 지난 9월 30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도민 중 서류심사와 지역여건 정



취를 거쳐 선발했다. 특히 지금까지 도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제9기 보다 퇴직공무원 비율을 7% 줄이고 생활밀착형 직업군인 자영업과 농축산사업 분야

관계자를 7% 확대했다. 연령대는 30대에서 50대까지 활동적인 연령층을 9% 확대하는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으로 구성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동신대, 하나은행 발전기금 및 장학금 전달식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대학 부속실 회의실에서 '주하나은행 발전기금 기부 및 하나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동신대 이주희 총장과 해인학원 이형석 상임이사, 하나은행 양동원 호남지역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하나은행은 지역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5000만원을 동신대에 기부했다. 또 <교육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금융상품 활용법 > 최신 경제 동향 정보 <재학생 국

제학생증 발급 <재학생 금융업무 편의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의 하나장학금 기부식도 이어졌다.

동신대 이유현·김관재(이상 컴퓨터공학과 2년), 윤지우(사회복지학과)·홍영택(전기공학과·이상 4년) 학생에게 각 100만원, 총 400만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다. 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4명, 모두 17명의 동신대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서구문화원·광주연구소 '광주정신의 현재적 가치' 세미나

광주서구문화원과 광주연구소가 지난 21일 공동 주최한 '광주 정신의 현재적 가치' 세미나가 성료됐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 조선대 정성배 교수는 '광주정신의 발전계승을 위한 쟁점과 제언' 발제에서 광주정신의 핵심요소로 '정의(正義)'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념적, 사회적인 정리와 함께 광주정신의 발전계승을 위한 비전과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수 전 호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신경주 광주국제교수센터 소장, 이동순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의향 광주정신에 대해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실천적인, 실무적인 발전

전략에 대해 동의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한편 정인서 광주서구문화원장은 "광주정신의 시민공감대와 실천적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광주연구소와 함께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계승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동강대 이현숙 창업보육매니저 일자리 창출 기여 복구청장상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 이현숙(사진) 창업보육매니저가 최근 창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과 지역 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복구청장상을 받았다.

이현숙 매니저는 고용노동부와 광주복구청이 함께 시행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과 창업보육(BI)센터 입주기업 지원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 이 매니저는 동강대 BI센터의 '중소벤처기업부 운영 및 경영평가 20년 연속 최우수(S등급) 기관 선정'에도 기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양식자재마트, 광산나눔문화재단에 굴 400상자



(유대양식자재마트(대표이사 임점숙·왼쪽 2번째)는 광산구 운수동 점포 앞에서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에 지역 사회복지시설 43곳에 전달할 굴 400상자(5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제공>

TV프로그램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번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40 굿모닝 카타르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하이라이트 모닝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내 눈에 콩깍지(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좋아 스페셜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동행(재) 55 안방 우리말 2022	00 태풍의 신부 스페셜	15 꾸러기 식자교실 45 시간탐험대 다이나맨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50 숨터 스페셜(재) 55 영상앨범 산(재)	00 12 MBC 뉴스 25 일타강사 스페셜	00 SBS 12뉴스 15 만방 네트워크 뉴스 30 2022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1	00 KBS네트워크특선 별별다방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25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20 헬로킴즈 공학교실(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브레드와 윌크의 세계여행 40 반짝반짝 달님이 2 55 다이나노 파워즈			
3	10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하이라이트	00 KBS 뉴스타임 10 두리동실 몽계공방(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누가누가 잘하나	55 5 MBC 뉴스	00 네모세모(재) 55 KBC뉴스와이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스페셜	00 알쏭달쏭 개치! 티니핑 15 시크릿 주주 베스트프렌즈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10 2002 월드컵 20주년 특집 다큐플러스 스페셜	55 닥터 365
6	00 6시 내고향	30 2022 카타르 월드컵 G조 <스위스·카메룬>	20 2022 FIFA 카타르월드컵 프리뷰쇼 카타르시스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2022 카타르 월드컵 G조 <스위스·카메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35 생방송 연극복권 720+ 40 MBC 뉴스데스크	
8	30 내 눈에 콩깍지		3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우루과이·대한민국>	
9	00 KBS 뉴스9	1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우루과이·대한민국>		0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우루과이·대한민국>
10	00 다큐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11	30 KBS 뉴스라인			
12	10 생로병사의 비밀(재)	1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포르투갈·가나>	1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포르투갈·가나>	40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포르투갈·가나>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둘레길	17:00 EBS 뉴스
05:3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손
05:5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시흥
06:10 세계테마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7:45 번개맨과 안전맨
07:00 꼬마버스 타요	12:00 EBS 뉴스 12	18:00 생방송 뚱딴지 해결단
07:15 하프와 친구들	12:10 EBS 교육진단	19:00 네가 빠진 세계
07:45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3:0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19:30 한국의 둘레길
08:00 당당동 유치원	13:50 명의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20 미니특공대 바이레인저스	14:45 한국의 둘레길	20:40 세계테마기행
08:35 한글용사 아이야	15:05 나를 위한 매일 수업	<골목에 빠지다, 모로코 -9천 개의 골목에 빠지다, 페스>
08:50 고고다노 우리동네공룡(재)	15:35 꾸러기 천사들	21:30 한국기행
09:05 최고다! 호기심딱지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가을 뜨락에서 4부 두이씨의 화양연화>
09:20 EBS 친구들 생생	16:15 페퍼 피그	21:50 극한직업
09:30 어떻게 만들까	16:25 한글용사 아이야(재)	22:45 공상가들
09:40 우리집 유치원	16:40 당당동 유치원(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4일(음 11월 1일 辛巳)

<p>36년생 끈질긴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48년생 산뜻한 새 모습으로 과감하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다. 60년생 입장을 분명히 하고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다. 72년생 마음만 있을 뿐, 실행하기 힘든 판세이니 참으로 애석하기 그지 없었다. 84년생 가닥이 잡히는 시점이다. 96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행운의 숫자 : 11, 62</p>	<p>42년생 원칙만을 고수하지 말고 융통성을 발휘하자. 54년생 희소성으로 인해서 가치가 급상승하게 된다. 66년생 가지치기를 접해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78년생 보류한 다게나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90년생 인고의 국면 뒤에 성취의 기쁨을 만끽한다. 02년생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0, 85</p>
<p>37년생 예기치 않은 정황까지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49년생 관련시키는 요인이 발생하는 판국이다. 61년생 자신을 내세우다 보면 충돌하게 되어 있다. 73년생 이제로운 감상을 피고 있으니 기대해볼 만한 일이다. 85년생 실행한 후에 밝혀도 되니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97년생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38, 69</p>	<p>43년생 대응해서 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알라. 55년생 자연스러워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67년생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시인스럽게 양보하는 것이 더 낫다. 79년생 치밀하지 않다면 의외로 새어 나가는 것이 많으리라. 91년생 연쇄적인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03년생 치밀하게 구성하고 철두철미하게 행하라. 행운의 숫자 : 33, 86</p>
<p>38년생 견해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라. 50년생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다면 최상이다. 62년생 사세 부득이, 전제적인 흐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74년생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모두 해결될 것이니라. 86년생 정확하게 가리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지는 정황이다. 98년생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7, 66</p>	<p>44년생 합리적으로 수용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다. 56년생 강운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되자. 68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겠다. 80년생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92년생 대인 접촉은 경계하는 것이 상책이다. 04년생 사용과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6, 98</p>
<p>39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51년생 굳게 닫았던 문이 신비롭게 열릴 것이다. 63년생 생활에 활력소가 될 만한 일이 보인다. 75년생 발전의 실마리를 찾게 되는 교유가 있다. 87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앞날 결과를 보인다. 99년생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될 것이니 예외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3, 57</p>	<p>33년생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자. 45년생 역마가 중중하니 몸이 아니라도 부족할 판이다. 57년생 기본적인 것이 미비한 상태라면 성과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69년생 의지만 있다면 실행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기회도 풍부함을 알라. 81년생 무탈할 것이니 안심하고 임해도 된다. 93년생 일시적인 미봉책은 화를 부른다. 행운의 숫자 : 14, 81</p>
<p>40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52년생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승부를 내라. 64년생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야만 태세를 수습할 수 있겠다. 76년생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88년생 긴급한 비상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 기운이 감지된다. 00년생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8, 71</p>	<p>34년생 손조로워 보이지만 결과는 미흡하다. 46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리라. 58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르게 된다. 70년생 전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되짚어 봐야 할 때가 되었다. 82년생 과욕만 하지 않는다면 고통은 없으리라. 94년생 밝은 지혜로써 살피고 정확히 개진해야 할 판국이다. 행운의 숫자 : 42, 78</p>
<p>41년생 선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53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65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77년생 만사를 제쳐두고 우선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89년생 안정된 마당이 되어야 집중할 수 있겠다. 01년생 불합리한 판도이니 벗어나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7, 94</p>	<p>35년생 중대한 길목에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47년생 아니 되는 것을 강행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59년생 형식과 체계를 중시해야 하는 시점이다. 71년생 말쑥한 소지가 있다면 아예 손대지 마라. 83년생 서로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무탈하다. 95년생 불면이 올 수 있으나 머지않아 해소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0</p>